

2008 **1**월호 제394호

주부교실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중앙회**
NATIONAL COUNCIL OF HOMEMAKERS' CLASSES

본회는
주부의 사회성을
개발하고,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주부에게 부하된 사명과
역할을 체득 실천함에
있어 주부중심,
지역중심의 조직 및
활동전개로 새 주부상을
정립해 나간다.



월간 주부교실 1월호

발행일 : 2008. 1. 20
등록일 : 1972. 8. 31
등록번호 : 라-1616호
*발행 : 사단법인전국주부교실중앙회
발행인 : 이윤자
편집인 : 김태연
주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 19-3
전화 : 2265-3627, 3628, 0637
2266-5870, 2273-6300, 2485
FAX : 2279-9341
http://www.nchc.or.kr
*인쇄 : (주)헤럴드미디어
대표홍정욱

비매품

주부교실

2008
통권 제394호 1

신년사	4	작은 실천으로 사회 변화시키는 힘 모아야 / 이윤자
새해 새포부	6	부산 - '회원' 중심으로 조직 내실화 / 김기묘
	7	대구 - 녹색환경 실현하는 '의식 있는 단체' 로 / 손기순
	7	인천 - 회원들 자긍심 높이는데 주력 / 한혜자
	8	광주 - 여성 발전을 위한 교육 강화 / 박영희
	8	대전 - 기본에 충실한 사회 분위기 조성할 터 / 송병희
	9	울산 - '나눔 실천' 으로 복지사회 구현에 힘쓸 것 / 박보봉
	10	경기 - 솔선수범의 자세로 조직 활성화 추진 / 박명자
	10	강원 - 관광문화 선진화에 동참 / 이금선
	11	충북 - 소비자단체로 자리매김할 터 / 최광옥
	12	충남 - 신뢰받는 봉사단체로 거듭나도록 / 조춘자
	12	전북 - 공동체 의식 함양에 동참 / 최원자
	13	전남 - 조직내실화로 지역발전에 기여 / 이송자
	13	경북 - 새로운 소비환경에 부응하는 사업 전개 / 이인호
	14	경남 -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사업에 주력 / 이인숙
	15	제주 - 노인복지 실현에 앞장서는 단체로 / 김영희
가격조사	16	설 성수품 구입 비용
고발사례	18	소비자의 소리 / 곽정자
알아봅시다	20	200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비자정보	22	택배 운송장, 소비자가 직접 작성·보관해야
소비자뉴스	24	1년 넘게 안 쓴 신용카드 연회비 면제
식품뉴스	26	쌀 포장지에 단백질 함량 등 표시
여성뉴스	28	감기약 영유아에 치명적 부작용 경고
포인트	30	소동 / 노순자
음식이야기	32	새콤달콤한 '감귤' 은 건강 비타민!
이달의 요리	34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웰빙 간식
여행정보	36	겨울을 녹여주는 여행지를 찾아서
문학산책	37	이달의 읽을 만한 책
지부소식	38	전국 16개 시·도 지부 및 232개 시·군·구 지회 소식
주부교실게시판	50	등산반 총회 및 주부대학·대학원 개강

<표지사진 : 합창단 창단 20주년 기념식 및 총회(중앙회, 08. 1. 15), 에너지절약 캠페인(수원시지회, 07. 12. 3)>

新年辭



이 윤 자
본회 회장

작은 실천으로 사회 변화시키는 힘 모아야

새로운 희망의 2008년 무자년(戊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본회에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는 회원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지난해 발생했던 사상 최악의 태안 기름 유출사고에 따른 환경오염과 피해로 인한 아픔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와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예상되는 크고 작은 변화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그리고 여성 지도자로서의 능동적인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본회는 건강한 사회문화 창출에 앞장서는 여성 인력 배양에 주력했던 한 해였습니다. 여성 스스로의 의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함께 남녀고용평등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여성 삶의 질 개선과 사회참여 확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여성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국의 주부교실 지도자 12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열렸던 '전국주부교실 지도자대회'는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으로 밝은 내일을 열어가는 지도자로서의 자질 함량과 회원 상호간 결속 강화를 다지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또한 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토론회를 비롯한 홍보 캠페인, 견학, 교육 등으로 물 사랑 국민의식 확산에 앞장서 왔으며,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 사업, 무한 경쟁시대의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 쌀 소비 확대 및 농수축산물 애용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더불어 가족과 이웃에 대한 결속력 강화를 위해 크고 작은 행사를 마련해 건강한 사회 문화 조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연말 주부대학 동문 및 회원 가족 10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진 주부대학 30주년 기념 '가족사랑·이

웃사랑 디너콘서트'는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였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작은 일에서도 큰 기쁨을 느끼며 봉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던 회원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고 올해에도 회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본회는 소외받고 있는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봉사활동과 함께 친환경 사회 구현 등 사회환경 개선 사업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최근 경제 살리기에 '울인'한 사회 분위기는 국민적 일체감을 보여주는 긍정적 이미지도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 경제를 우선시하다보니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하겠습니다.

또한 갈수록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 변화 및 자연재해 등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인 만큼 친환경 생활방식 실천 유도를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더욱이 올부터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시행되는 등 급변하는 소비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소비자단체로서의 위상 확립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회는 소비자가 자주적인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합리적인 소비 의식과 역량을 갖추어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소비자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안전한 소비생활 확보를 위한 활동 전개로 건강한 소비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소비자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예전과 다름없이 여성의 사회 참여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과 건강한 가정문화 확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지금까지 이룩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밝고 건강한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단체가 펼치고 있는 사업 모두는 회원들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실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지역 사회 및 국가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희망과 번영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2008년 올 한해도 이웃과 더불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봉사단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부교실 회원 모두가 힘을 모아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무자년(戊子年) 쥐띠 해를 맞이하여 주부교실 회원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새해 새포부

본회의 각 시·도 지부의 회장들로 부터 올해 지부에서 전개할
사업 및 활동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부산광역시지부



**‘회원’ 중심으로
조직 내실화**

〈회장 김기묘〉

해년이 황금돼지해라고 황금색 돼지 저금통을 사서 나누어 가진지가 엇그제 같은데 희망찬 무자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주부교실 부산지부는 조직 강화를 위해 사업성과와 출석률이 부진한 지회 지회장을 바꾸는 작업 등을 통해 본회 사업을 고루 나누어 사업을 전개하였다.

양성평등 가족 캠프, 가족과 함께하는 소비자 캠프, 한울타리 교실, 환경사랑 자전거타기운동, 장례식장 관련 토론회, 실버스포터즈, 우수 농산물, 축산물, 현장견학과 자매결연, 엄마와 함께하는 어린이 체험학습 교실개강(소비자교육, 경제교육, 교양교육, 부산항알기 교육 등)을 열심히 했고, 멀리 있는 지회를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노인 경제 교육을 위해서 복지관을 방문해서 건강교육과 함께

소비자 교육을 진행해 많은 보람을 느꼈다.

이 외에도 소비자 모니터 교육을 통해서 모니터들의 활동은 눈부시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소비자 고발건수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

새해에는 부산 소비자 단체가 ‘부산 소비자보호협의회’를 만들어 소비자에 관한 모든 사업을 분배해서 실시하여 성과도 올리고 예산도 같이 받아서 사업에 맞추어 고루 책정하기로 하여 기대가 크다.

한편, 각종 캠페인을 통해서 주부교실 알리기에 노력하지만 주부클럽으로 인식되어 시민에게 다가가는 속도가 느려서 힘이 빠질 때가 여러 번 있어 ‘주부교실’ 위상 확립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양질의 교육을 통한 회원 확보로 조직 내실화를 꾀함과 동시에 지난해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 단체는 사회의 어두운 곳은 밝히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회원 한 사람 한사람이 보람을 가지고 참여하는 주부교실로 만들 것이다.

지면을 이용해서 항상 전국주부교실을 걱정하고 이끌어주시고 중앙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리면 감사의 마음을 대신한다.

대구광역시지부



**녹색환경 실현하는
‘의식 있는 단체’로**

〈회장 손기순〉

무자년(戊子年) 새 아침이 밝았다.

눈부신 태양이 새해의 소망을 기원하는 사람들의 갈채를 받으며 수평선 저 멀리에서 힘차게 솟아 올랐다. 새 날의 태양은 새로운 지도자에게 온 국민의 바람인 ‘희망차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무한한 에너지를 보내듯이 환하고 밝게 비추었다.

지난 해는 모두 열심히 살았지만 시련과 갈등이 연속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태안반도 원유 유출로 인한 사고로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계속된 기름띠 제거 작업은 피해 지역주민과 온 국민의 걱정거리로 근심을 주고 있다.

현재 우리의 환경은 과다하게 사용한 화석연료와 다양한 인간 활동으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만년설이 녹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되어 얼음 속에 수 백 만년 동안 갇혀있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지구온난화가 가속돼 이상기후 변화로 인한 재앙의 징후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지역에 따라 홍수와 가뭄, 또는 혹서, 혹한, 토네이도, 폭풍, 태풍, 폭설 등과 같은 위협적인 날씨 변화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수백만 명의 인명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새로운 질병들이 급속하게 퍼지고 자연 생태계의 서식지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멸종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심각한 지구환경 현실에 우리 대구광역시지부 역시 지난해부터 환경문제에 본격적인 관

심을 갖고 녹색 환경조성사업, 녹색 먹을거리 활성화 사업, 녹색생활용품 만들기, 녹색 에너지 활성화 사업, 녹색 나눔 장터 등 가정에서부터 녹색살림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올해에도 녹색지구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범세계적인 과제로 삼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며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 고취에 힘쓰는 ‘의식 있는 봉사단체’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인천광역시지부



**회원들 자긍심
높이는데 주력**

〈회장 한혜자〉

지난해는 회장에 취임하고 3년째 맞이하는 해로 그동안 무모하리만큼 사업에 대한 열정 하나로 정신없이 달려왔다.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에서 3년을 지내오며 후회와 보람이 함께 했었다. 지난 시간은 눈덩이를 뭉치던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그 눈덩이를 굴러 좀 더 큰 눈사람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시기라고 본다.

2008년 새해는 우리 인천시지부가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고자 한다. 올해 사업으로 “엄마와 함께하는 어린이 경제캠프”를 계획하고 있으며, 인천시 지원 사업으로는 기존의 사업을 보완·확대해 나가면서 추가사업으로 ‘이주 노동자 가족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 동안 실시해 왔던 사업은 지속사업으로 꾸준히 발전시켜나가고자 하며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

불우이웃을 위한 김장사업은 회원들 간 친목도 모뿐만 아니라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던 기회였고, 주부교실 회원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해주었다.

“인천사랑 우리가 지키자” 행사를 더욱 알차게 준비해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인천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도시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날 수 있도록 인천의 역사와 유적지에 대한 이해를 도와 발전해 나가는 인천에 대한 애郷심을 갖도록 할 것이다.

새해에도 각 시·도지부의 계획과 구상이 모두 차질 없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소망하며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한다.

광주광역시지부



**여성 발전을 위한
교육 강화**

(회장 박영희)

여성의 사회참여가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21세기는 어느덧 여성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한 해가 바뀌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 많은 사업들을 전개하면서 보람된 순간도 많았기에 지부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

더욱 뜻 깊었던 것들은 ‘광주 지도자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광주지부의 위상을 높였었고, 지회별 교실 개강을 개최하여 지역민들에게 질 높은 교양 강좌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탄탄한 지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2008년 새해에는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한 가정문화 육성을 위한 토

론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여성들만의 문화와 예술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운동으로 각 분야별로 물가조사 및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며 국민건강 실현과 함께 농촌 살리기 운동으로 농촌 체험행사 및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친환경 인증농산물에 대한 조사도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농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여 우리 건강을 지키는 지킴이 역할에도 충실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인재 양성교육을 위한 중·고등학교 순회교육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에 앞장설 것이고, 25년째 운영하고 있는 주부대학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해 여성의 권익 신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가 되도록 이끌어 나갈 것이다.

대전광역시지부



**기본에 충실한
사회 분위기 조성할 터**

(회장 송병희)

2008년은 사회공동체와 가족공동체가 ‘행복’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 그 곳에서 넉넉하고,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했으면 한다.

대전 주부교실은 새로운 사업구상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순회교육프로그램이 자리를 잡은 만큼 대상층을 넓히고, 교육 내용을 다양화하여 회원들이 배우는 즐거움을 만끽하도록 하겠다. 더불어 가족 간 대화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모자캠프, 엄마와 함께 배우는 도자기 교실, 농촌 체험 활동,

쌀 체험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을 사회 속에 세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확대 방안’을 주제로 실태 조사와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으며, 건강 가정 문화를 형성을 위해 ‘건강한 가족관계를 위한 21세기 강의실’도 예정하고 있다. 지속사업인 회원친선운동회도 내용을 손질해 운영할 방침이다.

지역에서 소비자 운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단체로 자리매김한 만큼 올해는 더욱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겠다.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를 감소시키고자 특별히 2008년에는 전문 상담 능력을 배양하고 각종 약관과 계약서 등을 조사해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불이익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소비환경 개선과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지침을 담아내기 위해 소비자 정보전시회 내용을 개편하고, 청소년 및 노인 소비자교육도 충실히 하며 교육 대상 수와 층을 넓히고자 한다.

개원 3년차에 접어든 탄방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이제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고, 참여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 이용자가 30,000여명이나 된다. 독서와 PC이용, 영화 관람은 물론 논술, 펠트 공예교실, 와이어 공예교실, 생활과학교실, NIE교육, 일본어교실, 독서대회, 동요 부르기 대회, 사회성 향상프로그램운영 등을 운영한 결과 청소년들의 참여율이 높았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능력과 소질개발은 물론, 다양성을 추구하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진행해 진정한 의미의 청소년 전당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

‘기본에 충실한 사회’를 모토로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 근간을 흔드는 것은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고, 화합을 저해하는 말과 행동 등에 기인한다는 생각으로 기본에 충실한 사회를 만들

지는 내용으로 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할 생각이다.

울산광역시지부



**‘나눔 실천’으로
복지사회 구현에 힘쓸 것**

(회장 박보봉)

무자년(戊子年)인 2008년의 새해 새 아침에 모든 회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지난해의 좋은 일은 마음 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행여 좋지 않은 일, 나쁜 일들은 훌훌 털어내어 새해에는 더 좋은 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2007년에 울산 주부교실이 추진했던 한글·수학교실, CG텐 사업(가정 생활쓰레기 재활용 제고 사업), 그린여성자전거교실들은 나의 이익보다는 우리 공동체의 유익함을 위해, 소수보다는 다수의 나아짐을 위해 노력했던 프로그램이었다.

가정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모인 자원 봉사자로서 자신의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봉사를 통한 주부들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능력 개발의 기회로 삼고자 했던 사업이라는 자긍심을 가져본다. 이러한 사업들이 2008년에는 더욱 발전 하리라 생각되며 그 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2008년 한 해에는 나 보다는 내 이웃을 한번 더 생각하고 우리 주변의 결식아동, 혼자 계신 노인,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배우자 등과 같은 어려운 이들을 위해 한 번 더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 입니다.

주부교실이 발전하여 더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서 우리 이웃의 아픈 곳이나 힘든 곳을 어루만져 주는 건실한 봉사단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면 우리들의 소망은 다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매일매일 새롭고 희망찬 날들이 계속되어 하는 일마다 잘되는 복된 새해가 되시고 회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경기도지부



솔선수범의 자세로 조직 활성화 추진

〈회장 박명자〉

온 국민의 희망으로 시작했던 2007년 한 해가 아프간피랍사태와 서해안 원유 유출 사고, 삼성 비자금 폭로 등 굵직한 사건 사고로 얼룩졌지만, 모든 시름을 털어내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긍정적인 사고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한다.

지난한 해 우리 경기도지부는 전국 최초로 소비자 운동의 적극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 지도자층인 CEO 중심으로 자문위원 제도를 도입한 원년이었다. 비록 시작은 미약했지만 성숙된 조직을 만드는데 초석이 되었고, 새로운 자문위원 및 운영위원 영입으로 조직 내실화를 꾀할 것이다.

지난 해 대표적인 사업성과를 살펴보면 우리 농수산물 우수성 및 안전성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을 실시하여 새로운 정보를 통한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안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

했던 한 해였다.

특히 경기도지부를 시작으로 여주, 이천, 오산, 의왕 시지회를 순회하며 <소비자 정보 전시회>를 개최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2008년 올 새해 중점 사업으로는 새롭게 조직된 임원 개편을 통해서 첫째, 솔선수범하는 임원상 확립에 주력할 것이며 둘째, 31개 시·군 조직 강화 및 Net-work를 통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셋째, 자문위원 및 운영위원 확대로 조직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다.

끝으로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 (Pareto)의 80:20법칙 이론처럼 도지부 임원들과 31개 시·군 회장단은 창조적인 20%의 리더가 되어서 80%의 전체 회원을 잘 이끄는 성공적인 경기도지부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무자년 새해 아침 회원 가정 모두에게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강원도지부



관광문화 선진화에 동참

〈회장 이금선〉

신년도에도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이 나에게 큰 기쁨이다. 더불어, 지난 해 주부교실 강원도지부에 보내 주신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8년 무자년 한 해도 강원도지부 전 회원은 여성의 권익 향상과 주부의 사회성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일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성들의 평생교육진흥, 소비자사업, 환경보호

사업, 식생활사업, 이웃돕기사업, 청소년 보호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본회의 발전에 일조할 것임을 다짐한다.

우리 주부교실 회원은 청정 강원지역과 아름답고 깨끗한 관광문화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가정에서부터 쓰레기 분리수거와 음식물 쓰레기 및 각종 쓰레기 자원화에 앞장설 것이다. 특히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에 대한 친절안내, 외국인에 대한 각종 배려로 강원도 이미지 쇄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회원 모두가 주변의 많은 주부들로부터 호감을 받은 모범이 되어 우리나라 주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은 타인의 힘이 아닌 바로 우리, 여러분의 힘이다. 우리의 생활 터전을 ‘풍요로운 생활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결코 남의 일이 되어선 안 된다.

이웃과 함께 하고,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 되어 참여하고 행동해 새로운 비전을 위해 나아갈 때이다. 그 중심에 우리 주부교실 회원님들이 우뚝 서서 발전하는 사회로 이끌어 나가는 당당한 일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올 한해도 강원도지부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내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충청북도지부



소비자단체로 자리매김할 터

〈회장 최광옥〉

기대 속에 무자년 새해를 맞이했다.

금년에는 좀 더 건강하고 평안한 사회·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져 국민 모두가 넉넉한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해 대선이 이어 올 초엔 총선을 앞두고 있다. 정치와 선거에 휘둘려 주부교실 봉사단체가 봉사의 의미 자체가 희석되지 않을까하는 노파심이 앞서서는 만큼 급변하는 세상 돌아감에 더욱 우리 주부들의 지혜로움이 요구되는 해이기도 하다.

올 한해도 사회 곳곳의, 특히 소외계층에 작은 촛불이 되어 사회를 밝게 비추주는 우리 회원들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우리 충청북도지부는 국토 중심에 있으면서 유일한 내륙도시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지형적 특성에 맞게 다른 지부의 좋은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특히, 소비자사업 중도민들의 소비자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앞장서며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후처리보다는 사전 예방교육 및 캠페인에 앞장설 것이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가족동요부르기’ 사업의 경우 12개 시·군 중 6개 지역만이 자치단체의 후원을 받아 예산을 치러 본선에 임한 것과 달리 올해엔 12개 시·군 전체에서 모두 예산을 치를 수 있도록 독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12개 시·군 조직 강화에도 더욱 매진해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충청북도지부가 되도록 회원님들과 함께 열의를 가지고 맹렬히 돌진할 것이다.

한 해를 보내고 아쉬움이 아닌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의욕을 갖고 모든 사업에 임하리라 다짐해 본다.



급변화 속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새로운

충청남도지부



신뢰받는 봉사단체로 거듭나도록

〈회장 조춘자〉

지난해 국가적으로는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뜻하지 않은 태안 해상 원유유출 사고로 큰 시련의 한 해였지만, 우리주부교실에서는 경제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물가안정소비자교육 및 캠페인, 사회 환경 개선 운동 사업을 활발히 추진한 한 해였다.

금년에도 주부교실은 주부, 노인, 청소년을 위한 교육 사업을 비롯해 에너지절약사업, 우리농산물 지키기, 다문화 가정 및 건전 가정 만들기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명실상부한 봉사단체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특히 2008년 주부교실 충남도지부에서는 가정경제가 곧 국가 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가정경제를 중요시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지역에서는 신뢰 받는 단체가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첫째, 주부교실의 목적에 부합하는 특성화 사업으로 소비자 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둘째, 소비자 보호센터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셋째,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소비자 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일 것이다.

넷째, 회원 전체가 단합하여 더 나은 지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작고 소박한 아름다움을 지켜주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단체로 열심히 노력하는 충남 주부교실이 될 것을 약속하며 밝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다.

무자년 새해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전라북도지부



공동체 의식 함양에 동참

〈회장 최원자〉

미래에 대한 부푼 꿈과 희망으로 맞이하는 새해에도 우리 회원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에는 우리 주부교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작년에는 우리 고장 성장의 중심이 될 '새만금특별법'과 '무주태권도 공원 특별법'이 국회 통과라는 대업을 이뤄냈다.

앞으로 도래할 새만금시대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북도지부 회원 일동은 새만금 사업추진 과정에 함께 참여해 환경과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선봉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소비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우리 회원 모두는 세계로 뻗어가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환경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체 의식 함양에 힘쓸 것이다.

2008년 새해에도 우리 회원들과 함께 숨 쉬며 각종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단체가 되겠다고 다짐해본다.

전라남도지부



조직 내실화로 지역발전에 기여

〈회장 이송자〉

2008년 희망의 새날이 밝았다.

올해도 우리 전국주부교실 가족 모두에게 꿈과 희망이 가득하고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지난해는 고유가, 고용불안 등 많은 어려움으로 가정경제가 매우 불안정하였지만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전남도지부 회원들이 특유의 화합과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획한 사업을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를 불태웠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특히 지난해에 여성의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지회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만들어 우리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전남도지부 소식지 "New Leader 전국주부교실 전남"을 창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전남도지부 임원, 회원 여러분의 신념과 의지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값진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전남도지부는 올해도 변함없이 사랑을 바탕으로 한 특유의 조직력을 발휘하여 조직의 힘과 지혜를 결집하여 희망찬 새해를 열어가고자 한다.

2008년도 사업으로 특색사업인 환경 그림 그리기대회, 지도자연수회 및 전남대회, 다문화가정 축제, 가족동요부르기 대회를 더욱 내실화하고 새로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New Leader 전국주부교실 전남"이 창간 목적을 살려 우리 주부교실의 이념을 실현하고 사업을 계승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알차게 만들 생각이다.

또한 친환경 농업을 중심으로 한 "녹색전남"의 홍보대사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자 한다.

경상북도지부



새로운 소비환경에 부응하는 사업 전개

〈회장 이인호〉

지난해 개인적으로 주부교실에 입문하여 평회원으로, 지회장으로, 실무 책임자로서 활동한지 31년 만에 주부교실 경북도지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뜻 깊은 해이기도 하다.

남다른 감회로 맞이하는 무자년 새해는 주어진 책임감으로 벅차오르지만, 지난해를 디딤돌로 경상북도 23개 시·군 지회가 한 목소리가 되어 공동의 목적달성을 향하여 성장하고 비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우선 다짐해본다.

시대의 흐름은 여성이 국가의 경쟁력이자 지방

화 시대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여성의 역할과 위치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일 년의 계획은 새해 아침에 있다’는 평범한 진리와 함께 주부교실이 여성의 특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지역의 성장에 걸맞는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인 현실참여를 통해 지역발전과 화합을 이끌어 내는 한해가 되고자 한다.

또한 21세기 소비자 주권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소비환경은 소비자의 인식변화와 함께 스스로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소비환경이 변하고 소비자의 인식과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소비자문제 또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함이 명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우리단체의 할 일은 소비자 주권 향상을 위한 양질의 정보 수집으로 새로운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소비자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과 전략 강화 등으로 소비자안전과 주권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한편, 환경 폐해가 심각해지는 현실 속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가려한다. 아울러 다양한 참여와 역할이 요청되는 시대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주부교실이 되기 위해 분발할 것이다.

인간은 자기가 결심한 만큼 행복해 진다고하고, 먼 길은 혼자보다 함께 가는 것이 빠르고 행복하다고 한다. 회원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희망과 지혜를 모으고 미래를 바라보는 혜안을 높여 우리 모두가 함께 희망의 곡선을 주부교실을 통해서 그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난 해 도와주신 모든 분들과 주부교실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경상남도지부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사업에 주력**

〈회장 이인숙〉

희망과 번영의 출발점에서 무자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시대를 맞는 우리의 가슴 속에도 희망의 싹이 트고 있다.

먼저 경상남도에서는 올해 창원과 창녕에서 환경올림픽으로 불리는 ‘제10차 랍사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랍사총회 개최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친절, 질서 등 도민의식 운동 및 환경보전 활동에 주력할 것이다.

이에 도지부에서도 건강한 습지와 자연의 중요성, 습지와 생물의 다양성, 습지와 조류관계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한국을 방문한 세계인들에게 우포늪과 주남저수지의 철새 등 살기 좋은 우리의 환경을 알리고, 다정한 한국인의 정서를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다음으로 금년에 경상남도에서 계획한 세계여성인권대회에도 경남도지부를 비롯한 여성단체는 물론 전 여성이 함께 참여해 성공적인 대회로 끝날 수 있도록 분담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전개해오고 있는 주부대학, 부부대학을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여성의 인권 실현에 앞장설 것이며 다문화 가정의 조기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다.

한편, 금년 말까지 계약된 마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사업으로 현금 수입금의 투명성과 서비스 개선이 하루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운동 전개 및 현장 서비스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더불어 행정기관, 운송업체, 운전기사와 시민 모두가 협력해 자가용보다 버스 이용 증가로 쾌적한 친환경 도시 조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통문화 확립 등으로 삶의 질이 향상된 살고 싶은 마산, 경남이 되도록 주부교실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노인복지 실현에
앞장서는 단체로**

〈회장 김영희〉

무자년 새아침에 떠오른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슴 벅찬 눈부심이었고, 힘찬 해오름이었다. 건국 60년을 맞이하는 국민적 감회와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기대하는 국민적 소망이 교차되어 저마다의 가슴에 비전과 희망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2007년은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세계인의 가슴속에 깊이 각인되는 한해이기도 했다. 2008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인프라를 기점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며 도민적 소망을 펼쳐 나가야만 할 것이다.

제주는 전국에서도 가장 앞선 장수지역으로서 노인 인구가 전국 평균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사회가 함께 노인복지정책을 공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에 우리는 유병노인과 치매노인의 행복한 삶을 지향하기 위한 전문 간병인과 치매노인 미술치료사 등을 양성하여 노인복지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또 매월 4개 봉사단이 매주 봉사하는 시설방문도움미 활동과 한솔 봉사단을 더욱 강화하여 노인 시설봉사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여성 인재들을 발굴하여 능력과 기량을 키워나가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할 분야다. 한국정치도 소신과 원칙에 충실한 외유내강의 여성 정치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다.

작년 중국과의 국제교류의 물꼬를 터서 중국무대에서 문화예술교류에 참여했던 주부교실 한소리합창단을 더욱 발전시켜 여성의 글로벌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 아시아 이웃나라 여성들과의 문화예술 및 여성단체교류도 적극적으로 시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난해 새롭게 시작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아르떼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며, 저소득층 소년·소녀들의 정서함양과 문화적 소외를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나도 힘껏 날고 싶어요’를 통해 새롭게 청소년 문화교실도 운영할 것이다. 청소년 환경교실사업인 “설문대할망과 함께하는 생태체험”은 가족이 함께하는 지역탐방 환경교실로서 더욱 충실을 기해 나갈 것이다.

소비자물가감시센터도 제주지역 소비자사업의 중추적인 역할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이다.

「말보다 행동이 더 큰소리를 낸다」는 성녀 테레사 수녀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무자년 새 아침에 말없이 산을 지키는 못생긴 나무처럼 주어진 일에 성심을 다할 것이다. ■



설 차례상 작년보다 2.1% 올라

- 4인 가족 설 성수품 구입비용 209,649원 -

연초부터 주요 물가가 들쭉이는 상황에서 올 차례용품 가격 변동이 심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회는 1월 7일~8일 서울 시내 백화점, 할인마트, 일반 슈퍼마켓, 재래시장 등 총 100곳에서 설 성수품 30개 품목에 대한 가격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1) 설성수품 물가동향

4인 가족 기준, 작년보다 2.1% 올라

설(2/7)을 약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설성수품 30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해 본 결과, 작년에 비해 배추, 밀가루, 식용유, 계란, 닭고기, 조기(수입산), 약과, 황태포 등이 주요 상승 품목으로 나타났으나 양파, 단감, 대추, 배 등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4인 가족 기준 주요 성수품 구입비용은 작년에 비해 2.1% 오름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보다 수산물(조기, 황태포, 동태포), 축산물(계란, 닭고기, 쇠고기)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밀가루와 식용유의 가격도 대폭 상승하였으나, 배추를 제외한 양파, 단감, 대추, 배, 사과 등의 과일류나 야채류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가격상승품목(22개 품목) 중 상승률이 가장 큰 품목은 배추(65.0%)였고, 가격하락품목(8개 품목) 하락률이 가장 큰 품목은 양파(-35.8%)로

조사되었다. <표1 참조>

(2) 4인 가족 차례상 구입 비용

재래시장 저렴하고, 서울이 가장 비싸

4인 가족 기준 구입비용은 209,649원이었고, 이를 업태별로 비교해보면 백화점이 268,626원, 할인마트 205,314원, 슈퍼마켓 193,708원, 재래시장 151,940원의 순서로서 재래시장에서의 구입가격이 백화점보다 거의 절반 가격인 116,686원(43.4%)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태별 설 기본 차례상 비용을 작년과 비교해 총 평균가는 2.1% 상승했지만, 재래시장의 가격 상승폭이 4.6%로 다른 곳에 비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4인 가족 성수품 구입비용을 비교해보니 서울 209,649원으로 가장 비쌌고, 185,145원 순으로 비쌌으며, 가장 저렴한 충남(공주, 천안)의 161,600원에 비해 서울이 29.7% 비쌌다. <표2 참조>

(3) 설성수품 업태별 평균가격 비교

백화점이 최고가 품목 가장 많고, 업태별 질적 차이 고려한 소비자 선택 필요

설성수품 평균가격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업태별로 비교해보면, 평균가격의 최고가가 많은 곳은 백화점으로서 26개 품목이었고, 평균가격의 최저가가 가장 많은 곳은 재래시장 25개 품목으로 조사되어 몇 개 품목을 제외한 농수축산물은 대체적으로 재래시장이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 과일이나 쇠고기, 조기 등 농수축산물의 질은 업태별로 차이가 심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야겠고 단순히 가격비교만을 하기 보다는 질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결론

이번 조사결과 배추, 밀가루, 식용유, 계란, 닭고기, 수입산 조기 등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되었고, 수산물과 축산물이 상승 주도 품목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비해 과일 및 채소류가 가격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과일 및 채소류의

<표1> 주요품목별 상승률·하락률 비교표

오른 품목		내린 품목	
배추(2kg)	65.0	양파(1Kg)	-35.8
밀가루(2.5kg)	52.8	단감(1개, 200g)	-31.9
식용유(1.8L)	18.4	대추(국산, 300g)	-10.5
계란(일반란, 1판)	15.5	배(신고, 700g, 1개)	-9.0
닭고기(1kg, 국산)	11.9	두부(판 두부1모)	-8.6
조기(수입산, 25cm)	10.5	사과(부사, 300g, 1개)	-3.2
약과(350g)	9.2	돼지고기(목심)	-2.6

<표2> 4인 가족 주요 성수품 구입 비용의 지역별 비교

지역별	4인가족 주요 성수품 구입비용
서울	209,649
울산	194,770
인천	185,145
대전	183,189
충북(충주, 청주)	176,569
광주	176,477
대구	175,939
전주	175,596
경남(마산,창원)	175,221
부산	169,821
구미	169,736
원주	164,525
제주	162,714
전남(순천,나주)	161,749
충남(공주, 천안)	161,600

물량확보가 원활하다면 가격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수산물의 가격상승세는 기름유출 피해 여파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밀가루와 식용유 등 일부 가공식품의 대폭 상승으로 인해 관련 품목이 벌써부터 인상조짐이 보이고 있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지속적인 물가감시 활동이 필요하다. <최애연 / 본회 소비자보호부장>

소비자의 소리



부모 동의 없는 학습지, 해약 청구 요청했는데도 대금 지불 독촉

내용 임채정(광주광역시 서구)씨는 2007년 11월 1일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려는데 교내에서 설문조사에 잠깐 응답해 달라는 방문판매원의 요청에 응하다가 충동 계약을 하게 되었다.

미성년자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도 없고 대금 지불능력이 없어 계약철회요청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12월 12일자로 발송하였으나 해약되지 않고, 휴대폰으로 3일 간격으로 신용불량등록 법적소송 및 형사고발하겠다고 문자로 협박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에 피해 구제를 요청하였다.

처리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 확인 조회한 결과 2007년 9월 3일자로 방문판매 및 통신판매업 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사업소에 구매자가 1988년 8월 3일생으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계약은 계약 철회할 수 있으므로 판매회사 직원에게 합법적인 해약 요청임을 알리고 즉시 해약 반품 처리토록 했다.

인터넷 업그레이드 및 할인조건으로 재계약 후 이행치 않아 해지 요청하니 위약금 요구

내용 조성욱(평택시 월곡동)씨는 2004년에 기남인터넷사용 3년 약정 후 2007년 11월 23일 만기일이 되었다. 속도가 너무 느리고 불편하여 다른 회

사로 변경하려 하는데 전화상으로 업그레이드와 금액 할인을 약속조건으로 인터넷 재계약을 했다. 이후 재계약 내용을 이행치 않아 2008년 1월 해지 요청을 하였더니 재계약을 했으므로 위약금 44,690원을 지불하라고 한다.

처리 해당업체 상담원과 통화해 부당 거래 조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비자에게도 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토록 도와줘 위약금 없이 해지 처리하였다.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코트 반품 요구하니 환불대신 적립금으로 처리

내용 김보람(대전시 서구)씨는 인터넷 쇼핑몰 오도루에서 95,500원에 코트를 구입하였다. 상품을 받고 확인하니 단추도 없고 옷이 맘에 들지 않아 4일만에 반품 요청하니 게시판 이용안내에 반품시 적립금으로만 반품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환불이 안 된다고 하는데 업체의 기준대로 해야 하는지 상당 요청했다.

처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 7일 이내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제18조 2항에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사의 규정보다 법규가 우선 적용되어야 함을 알리고 전액 환급 처리토록 했다.

APT 중도금까지 지불했는데 확장공사 계약조건 이행치 않아

내용 강영훈(경남 창원시)씨는 2007년 6월 창원 월드 메르디앙 APT 잔여세대 32평을 계약 후 중도금 2천 5백 만원을 불입하고 있는데 계약시 베란다와 거실 사이 확장공사를 무료로 해준다는 업체의 조건을 듣고 계약을 했다. 이후 업체에서는 공사 진행이 다 되어 가고 있어 확장공사가 어렵다고 통보해 와 억울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처리 해당업체 담당 책임자와 통화해 본 결과 민원인의 확장공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본사와도 협의 중이라며 공사 진행을 꼭 이행토록 추진하고, 원하는 대로 확장 공사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다.

유선방송 설치 후 정구방송까지 시청불가로 해지 요청하니 위약금 요구

내용 박봉규(용인시 기흥구)씨는 2008년 1월 3일 한빛기남방송 설치 후 정구방송까지 시청할 수 없을 만큼 TV화면이 고르지 않고 흐려 A/S 의뢰한 결과 난시청 지역이라서 화질의 선명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곤란하다고 한다.

해당사에 해지 의뢰했더니 이미 등록되었기 때문에 위약금 41,000원을 지불해야 한는데 부당 요구라며 상담해 왔다.

처리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시설 사용의 장애 원인으로 유선 방송 설치 후 화질이 떨어진 사례이므로 정상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복구할 사업자의 의무임을 알린 후 설치비 41,000원 면제 가능성을 확인, 위약금 없이 해지 처리하였다.

114 안내 도우미로부터 인터넷 광고 계약 강요

내용 강성혜(경기도 평택시)씨는 2008년 1월 4

일 전화로 114 안내 도우미라며 유치원 홈페이지 지원과 광고를 게재해 준다고 계약을 요구했다.

업무가 바쁜 와중에도 인터넷 114를 들어가 보라며 권유하기에 확인해 봤더니 그냥 신문 광고처럼 광고뿐 홈페이지 기능이 없어 하지 않겠다고 거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귀찮을 정도로 집요하게 전화를 하며 대금 80,000원을 먼저 결제하라는 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너무 지나친 것 같이라며 도움을 요청해왔다.

처리 회사 담당자와 통화해본 결과 양쪽의 주장이 조금씩 다른데 계약서가 없고 대금 지불해야 할 증거가 없어 대금 청구는 부당하므로 대금 청구를 취소하기로 했다.

2년 전 구입한 디지털 전자시계 부품 없다며 A/S 거절

내용 박정환(대전광역시 서구)씨는 2년 전에 동대전 홈플러스에서 벽걸이형 디지털 전자시계를 구입하였다. 잔 고장이 나 여러번 A/S를 받았고, 다시 고장이 발생하여 매장에 가져가니 부품이 없어 수리가 안 된다고 한다. 홈플러스에서는 아무런 배상도 해줄 수 없다 하는데 57,000원 주고 구입하여 2년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결함 상품이 아닌지 상담해왔다.

처리 전자시계는 완제품이므로 공산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공산품의 경우 부품 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 감가 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전자시계의 경우는 부품 보유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내용년수를 5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액법에 의거 감가 상각하여 34,200원을 배상받는 것으로 합의 처리하였다. <확정자 / 본회 소비자상담실장>

200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제 · 금융

● 초중고 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 확대

1월부터 방과후 학교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구입비 등도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자녀 출산 · 입양시 추가 공제

1월 1일부터 자녀를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경우 출생한 당해 연도에 한해 해당 자녀 1인당 200만원씩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자영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 인터넷뱅킹 이용한도 차등화

내년 4월부터 보안 등급별로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의 이체한도가 차등화된다. 인터넷뱅킹의 경우 현재와 같이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만 사용하면 보안등급 3등급으로 분류돼 이체한도가 10%로 줄어든다. 개인의 1회 이체한도는 1억원에서 1000만원으로, 1일 이체한도 역시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법무 · 행정

●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및 국민참여재판제 도입

1월 1일부터 호적이 폐지되고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 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가지 종류이다.

‘국민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의로 사망을 야기한 범죄 등 일부 중죄(重罪) 사건에 한해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20세 이상 국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한다. 각 법원 재판부가 배심원을 무작위 선정해 출석통지를 하면 5~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유·무죄 및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 손쉬운 부동산등기부 발급

지도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의 정확한 지번을 알지 못해도 부동산등기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4월 1일부터는 인터넷으로 사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5월 1일부터는 상호와 외국인의 성명을 등록할 때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 숫자. 일정한 부호를 쓸 수 있다.



보건 · 복지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7월부터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조성된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으로 당연 가입되며, 이에 따라 월 2500원 내외의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납부하게 된다.

● 국민연금 급여 소득 50%로 하향,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인상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연금 급여수준이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50%로 인하된다. 연금 급여율은 내년 50%에서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 40%로 인하된다.

또한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6.4%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0.31%포인트 오른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139.9원에서 9.0원 상승한 148.9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건설 · 교통

● 1000cc 미만 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내년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되는

경차의 규격이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확대된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차규격이 확대됨에 따라 1000cc 미만 차량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이 확대된다.

● 지역거주 ‘1년 이상’돼야 우선공급

1월 1일부터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수도권의 투기 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우선공급’ 받기 위해선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여성 · 노동

●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확대

내년 4월부터 전국 38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내년에는 65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일시적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간제 서비스로, 인근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해 일정액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 가족은 시간당 1000원, 일반 가족은 4000~5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6월 21일부터 사업주는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 알려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자료제공 : 재정경제부>



택배 운송장, 소비자가 직접 작성·보관해야

명절 전후로 택배 관련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해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적이 있다. 택배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강화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가 택배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만 알고 있어도 소비자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달을 의뢰할 것

설날과 같은 명절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다량으로 몰리고 교통량도 많이 증가해 운송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배달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

◆ 가급적 택배표준약관을 사용하는 택배회사를 이용할 것

운송물의 파손·훼손, 배송지연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배상조건·배상범위 등에 관해서는 택배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가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택배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택배회사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민약, 택배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택배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고,

택배표준약관의 내용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면 계약 내용을 수정시킬 필요가 있다.

☞ 택배 표준약관 주요 개정내용, 알아두세요!

- 손해배상한도액을 50만원에서 할증요금 지급시 최고 300만원까지 인상
- 사업자의 운송물 포장의무 및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강화

◆ 배송 의뢰시 운송장은 직접 작성하고, 배송 완료시까지 보관할 것

운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명 및 물품가격 등은 운송 도중 운송물이 분실·파손되는 경우 사업자의 배상범위를 결정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되므로 소비자는 운송장에 물품명과 물품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

◆ 택배 발송 사실을 수령인에게 미리 알릴 것

피해 발생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택배로 선물을 보낸 뒤에는 받을 사람에게 보낸 물품의 종류·수량·중량 및 수령예정일 등을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

◆ 운송물 수령 시에는 택배회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을 개봉하여 물품 상태를 확인 후 수령증에 서명할 것

운송물이 파손·훼손되어 배달된 경우 택배회사 직원이 간 이후에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귀책 주체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물품 수령 즉시 포장을 개봉하여 물품 상태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이 좋다.

◆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택배회사에 즉시 통보할 것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으며 피해발생 원인과 귀책주체를 가리기 어려워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택배회사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을 숙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적절히 대응할 것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재정경제부 고시)은 택배회사의 운송물 분실·파손, 배송지연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운임도 환급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알아두세요!

① 택배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 *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 *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
 - 일부 멸실된 때는 인도일의 인도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② 택배 운송 중 훼손된 경우

- *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 적용

③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

- *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임환급 및 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④ 인수자 부재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

- *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
- * 다만,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하는 등 충분한 후속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면책

1년 넘게 안 쓴 신용카드 연회비 면제

올 4월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에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년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승인하고 이르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표준약관에 따르면 앞으로 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카드를 쓰지 않은 회원에게는 연회비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카드사는 고객의 카드 미사용 기간이 1년째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e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편물 등을 보내 고객의 의사를 확인한 뒤 해지를 원하는 고객의 카드를 해지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카드 발급 후 쓰지도 않았는데 연간 5000~1만 원 안팎인 연회비가 자동 이체돼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단체소송' 시행으로 소비자 힘 커져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실시된데 이어 올해부터 소비자단체소송 제도가 시행돼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기업의 위법행위를 강제로 중지시킬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경련과 소비자단체 등 13개 단체를 적격 단체로 지정했으며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등은 소송 지원을 위한 변호인단 확충에 나서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어서 기업들의 위법행위에 맞서는 소비자들의 파워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소비자단체소송은 법원으로부터 위법행위가 인정됐다는 것만으로도 기업들의 대외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소송을 낼 수 있는 단체의 자격요건을 법으로 엄격히 정하고 대상도 안전과 거래, 표시, 광고,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위반사항으로 한정됐다.

교육물가 상승률 6%, 10년 만에 최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

물가는 2006년에 비해 6.0%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5%)의 2.4배에 이르렀다. 이 같은 교육물가 상승률은 같은 수준을 기록한 2003년(6.0%)을 제외하면 1997년(7.3%)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지난해 유치원 납입금은 9.2% 급등했고, 국·공립대학원 납입금은 8.8%, 국·공립대 납입금도 8.6% 올라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사립대 납입금(7.0%), 사립대학원 납입금(6.5%) 등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사교육비 물가는 유치원, 초등학교들의 가정학습지 가격이 7.6% 상승했고 보습학원비(5.6%), 피아노학원비(5.1%), 미술학원비(4.2%) 등도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교육물가가 소비자물가보다 2배 이상 오르면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티머니(T-money)도 올해부터 소득공제 혜택

티머니 발행사인 한국스마트카드사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티

머니를 사용해 결제한 금액에 대해 2008년도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티머니는 교통요금뿐만 아니라 GS25, 웨미리마트, 세븐일레븐, 미니스탑, 바이더웨이의 5대 편의점을 포함한 모든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티머니 카드 사용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스마트카드 홈페이지(www.t-money.co.kr)를 방문해 본인의 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안전마크 없는 제품들 시중에 다량 유통

정부기관의 안전인증을 받거나 기업 스스로 안전기준에 맞춰 제작했음을 나타내는 안전마크(KPS마크)를 붙여야 하는 상품 가운데 이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들이 시중에 다량 유통되는 등 안전마크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소비자 제품안전 감시단이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 8개월간 전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KPS마크 표시 대상 65개 생활용품의 부착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품목의 경우 미부착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제도시행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심각한 품목은 식탁·주방용품으로 27건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26종의 제품에 안전마크가 없었으며 섬유유연제(35.8%), 학용품(34.9%), 물휴지(31.7%) 등도 미부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안전관리 대상이던 품목은 안전마크 부착률이 높아진 반면, 신규 품목은 아직 미흡한 상태라고 시인하면서 앞으로 제도, 홍보 외에 미부착제품 제조자 및 판매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가입 제한 없애

금융감독원은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의 무사고 경력이나 거주 지역, 차종, 연령 등을 이유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

해 소비자 불만이 많아지고 있어 앞으로 이런 이유로 자동차보험을 받지 않는 보험사는 제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예로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등 사고다발자, 보험사기 혐의자 또는 경력자를 제외하고 모든 운전자가 자신이 원하는 보험사에 자유롭게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손보사들은 현재 자체 인수지침을 통해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 폭이 커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을 받지 않고 있다.

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거주자, 고가의 차량 소유자, 10대 운전자 등은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나중에 보험금 지출이 많아진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인수를 꺼리고 있었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손해보험협회는 4일부터 자동차보험 인수상담센터(☎02-3702-8631)를 설치해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있다.

쌀 포장지에 단백질 함량 등 표시

2월부터 소비자들도 쌀을 고를 때 단백질 함량이나 품종 순도 등 상세한 품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쌀 포장시 권장 표시 사항에 단백질 함량, 완전립 비율, 품종 순도 등 품질 항목을 추가하도록 양곡표시제도를 개선해 다음달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쌀에 단백질이 많을수록 밥의 찰기와 질감이 떨어져 단백질 함량이 '6.0% 이하'로 표시된 쌀이 좋은 품질이고, 품종 순도와 완전립 비율은 그 비율이 높을수록 좋은 쌀이라고 한다.

버섯, 유방암 예방 효과 탁월

한양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김미경 교수팀은 3일 유방암 환자와 일반 여성의 버섯 섭취량, 섭취 횟수, 유방암 위험 등을 분석한 결과 폐경기 여성의 경우 버섯 섭취량과 섭취 횟수가 많을수록 유방암 위험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고, 이 연구결과는 국제 암 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 of Cancer) 최신호에 게재됐다.

김 교수팀은 이 연구에서 2004년 10월~2006년 6월 삼성의료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은 30~65세 여성 362명과 다른 분야 진료를 받은 여성 362명을 대상으로 버섯 섭취량과 섭취 횟수, 유방암 발생 여부 등을 조사했고, 조사대상자들을 버섯 섭취량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버섯 섭취 횟수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유방암 발생 위험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버섯 섭취량이 0인 그룹과 섭취 횟수가 0인 그룹의 암 발생 위험을 각각 1이라고 할 때 버섯 섭취량이 하루 18.3g인 그룹의 암 발생 위험은 0.55로 줄었고 주당 3회 이상 버섯을 먹은 그룹의 암 발생 위험은 0.59로 감소해 버섯이 암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폐경기 여성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버섯에는 암 발생에 관여하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생성을 막는 아로마테이즈 억제제

등이 들어 있고 이런 활성물질을 이용해 유방암 예방·치료제를 개발하려는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땅콩, 적당한 양 섭취는 다이어트에 도움

지방 덩어리로 생각돼 온 땅콩에 체중을 감량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농무부 농업연구소 연구팀은 10~14살 사이의 비만이 있거나 비만우려가 있는 어린이 60명에게 땅콩과 과일, 채소류를 함께 섭취하게 한 결과, 3개월 후 어린이들의 체중은 줄어들었고 감소된 체중은 6개월이 지났을 때 까지도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땅콩에 들어있는 레시틴, 불포화 지방산, 마그네슘 같은 성분들이 체내에 들어온 장에서 지방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고, 몸속에 들어온 지방을 소화시키거나 분해시키는 것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체중감소 효과를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땅콩은 당분은 적고 양질

의 지방과 단백질은 풍부하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다른 식품들에 비해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 다른 식사의 양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혈당을 높이지는 않고 양질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어 당뇨 환자들에게도 좋은 식품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열량이 높은 편이라 매일 작게 한줌 정도의 땅콩을 먹는 것이 다이어트 효과적이고, 푸른색 채소, 양파, 마늘이 듬뿍 든 샐러드에 땅콩을 섞어 먹게 되면 땅콩의 지질이 산화해 발생하는 염증성 물질을 제거하기 때문에 추천할 만한 섭취 방법이다.

'한우확인 시험법'으로 원산지표시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00% 한우를 판별할 수 있는 '한우확인 시험법'을 활용해 음식점 단속에 나선다.

식약청이 고시한 이번 '한우확인 시험법'은 한우의 다양한 특성들을 나타내는 유전자(SNP-단일다형성형성)를 이용해 한우를 수입우, 교잡우, 젖소 등과 완

벽히 구분해 100% 판별할 수 있는 세계최초로 개발된 시험법으로 2007년 1월에 이 시험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으며 적용성 시험과정을 거쳐 시험법에 대한 검증을 완료한 바 있다.

이 '한우확인 시험법'은 식품 위생법에 따라 올 6월부터는 단속 음식점 기준이 300㎡ 이상에서 100㎡로 변경됨에 따라 거의 모든 음식점 단속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는 한우확인 시험방법을 이용하여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하며,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국민 안심감을 확보하고 판매업자의 부당한 이익 추구를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셀레늄 강화식품, 일반인 섭취는 해로울 수도

해외 언론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30가지 방법'으로 소개돼 유명해진 영양소 '셀레늄(Se)'.

국내에서도 셀레늄을 강화한 식품과 농산물이 개발되는 등 신드롬이 일기도 했지만, 최근 식

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한국인은 셀레늄 결핍 질환이 있거나 치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셀레늄 강화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셀레늄은 인체에 필요한 무기질인 동시에 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따로 복용하는 셀레늄의 양에 생활로부터 섭취하는 양까지 합하면 자칫 과도한 양의 셀레늄을 장기간 섭취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셀레늄을 과량 섭취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필요 이상을 섭취하면 그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중추신경계, 간, 심장, 폐, 피부에 이상이 생기는 '셀레노시스'라는 질환이 있다.

따라서 식약청은 셀레늄 결핍 질환을 앓는 환자나 다른 이유로 치료과정에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셀레늄 강화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하면서, 셀레늄이 많이 들어 있는 일부 영양제도 과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기약 영유아에 치명적 부작용 경고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감기약이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감기약을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FDA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감기약을 영아나 2세 미만의 유아가 복용할 경우 사망과 발작, 호흡이 거칠어지고 의식이 흐려질 수 있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유아에게 먹여서는 안된다고 경고한 감기약의 성분에는 코가 막힌 데 쓰는 충혈완화제, 가래를 삭혀주는 거담제, 알레르기 치료제인 항히스타민제, 기침을 멎게 하는 진해제 등이 포함돼 있다.

FDA는 영유아에게 감기약이 아직까지 안전한지 또는 효과적 인지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고 말하며 감기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생후 6개월 모유수유, 엄마·아이 모두 암 예방에 효과

미국 암연구소 연구팀의 연구 결과 생후 최소 6개월간 모유수유를 하는 것이 엄마와 아이 모두에게 암을 예방하는 등 건강에 좋다고 발표했다.

같은 모유수유가 폐경 전 여성과 폐경 후 여성 모두에 있어서 유방암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모유수유로 자란 아이들이 과체중이나 비만이 될 위험이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과도한 체지방과 연관된 일부 흔한 암 발병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는 아이들이 최소 영유아기에는 과체중이 되는 것을 막는 바 아이들이 자라면서 과도한 체지방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대장암, 신장암, 췌장암, 자궁내막암, 식도선암, 폐경후 유방암 등의 발병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팀은 모유수유와 연관된 호르몬 변화가 여성의 생리 주기를 길게 변화시키는 바 이 같이 생리 주기가 길어짐으로 인

해 여성들에서 유방암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고 밝혔다.

흡연, 나이 들수록 실명 위험 47% 높아져

미국 위스콘신대 연구팀이 안과학회지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담배를 피는 것이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는 노인성 황반병성 발병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기존에 이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있어서 병변의 진행을 더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43~84세 연령의 4926명을 대상으로 15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결과 흡연자들에서 조기 노인성황반병성 발병 위험이 약 47% 가량 높았다고 밝히면서 다른 위험인자와 독립적으로 흡연이 노인성 황반병성의 발병률을 높이고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며 담배를 끊을 것을 강조했다.

칼슘 보충제 복용, 심장병 유발 위험으로 신중해야

흔히 골밀도 저하 예방을 위해 폐경기를 지낸 여성들이 섭취하

는 칼슘 보충제가 고령 여성에게 심장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 연구팀은 지난 5년간 1,500여 명의 건강한 폐경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매일 한 알씩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반면, 다른 그룹은 위약을 복용했다.

연구팀은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여성들에게서 36건의 심장마비가 발생했고, 위약을 복용한 여성들에게서는 22건의 심장마비 발생했다고 밝히면서 칼슘보충제가 혈관의 강화를 촉진시켜서 심장마비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70살 이상의 고령이거나 심장 주변의 관상동맥 질환을 갖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팀은 권고했다.

부모 콜레스테롤 높으면 자녀 수치에도 영향

인제대학교 백병원 가정의학과 유선미, 강재현 교수와 질병

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대사영양질환팀 송지현 박사 연구팀은 과천시 초등학교 1학년 남녀 자원 학생 108명과 그 부모 216명을 대상으로 콜레스테롤을 조사한 결과 부모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녀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아동 본인과 부모의 생활습관, 부모의 콜레스테롤 수준 등 아동 콜레스테롤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집중 분석한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콜레스테롤 수치와 자녀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관관계가 있으며 부모 가운데 어머니의 수치와의 상관관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팀은 조기에 관상동맥질환을 앓은 가족력이 있거나 고콜레스테롤증이 있는 부모의 자녀는 조기에 혈중 콜레스테롤을 측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이들의 고지혈증 예방을 위해 부모들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콜레스테롤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30~40대 초반의 젊은 부모라면 고지혈증이 없더라도

관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낮잠, 기억력 향상·심장병 예방 등에 효과적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낮잠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규칙적으로 낮잠을 자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집중력이 증가해 학습 또는 업무 능력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스라엘 하이파대 연구팀에서도 낮에 90분 정도 잠깐 지는 것이 장기 기억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유럽의 내과학회지는 2만여 명의 건강한 그리스인을 평균 6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3번 이상 낮잠을 잔 사람들이 낮잠을 자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장 발작을 비롯한 심장 관련 질환 위험이 3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게재했다.

따라서 불면증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60~90분 정도의 낮잠은 기억력 향상뿐만 아니라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소 동

노 순 자 / 소설가

신호음 이 예닐곱 번이나 울린 후에야 졸음 담긴 목소리가 건너온다.

엄마? 지금이 몇인데 안 주무시고.. 무슨 일 있으?

자라목 내밀 듯 구슬 같은 것이 나왔다 들어가는 모양을 보며 여인은 속삭인다.

일이 있는 건 아니고 너 좀 지금 올 수 있나 해서 예? 지금 11시도 넘었는데... 아빠하고 싸우셨수?

애는. 누가 들으면 제 부모가 맨날 싸우다 자식한테 전화나 하는 줄 알겠네 치미는 말을 삼키며 여인은 인내심을 행킨다.

누가 굉장한 선물을 보냈는데 숨을 쉬어. 너무 크고 대단해서 영물 같아. 거대한 스티로폼 상자를 열었더니 팔뚝만한 새우가 열 마리나 덮이고 레몬조각 섞인 얼음이 가득인데 글썽 구슬 같은 게 움직이지 뭐야. 수정체인지 갈색 동자가 쑥 올라왔다가 자라목 움츠리듯 쑥 들어갔다. 아이구 얼마나 놀랐는지.

참을성 있게 듣던 딸이 말허리를 자른다.

그래서? 그걸 한강건너 사는 날보고 자다말고 어쩌라고?

딸의 목소리에 묻는 짜증을 모르는 척 여인은 계속한다.

너 이건 보통 생물이 아니야. 밴쿠버 아쿠아리움에서도 이렇게 크고 잘생긴 놈은 못 봤어. 바다가재가 아니라 새까맣고 거대한 조각 작품 같다니까. 얼음을 좀 헤

쳤더니 넘적한 허리통이 꿈틀하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너무 놀라서 간 떨어지는 줄 알았어. 아무튼 숨을 쉬고 있으니까 아빠 말씀이 아이들 데려다가 얼른 보여주라고. 어차피 잠은 설쳤고 지금 오면 안 되니? 잠은 와서 자도 될 텐데.

아이고참 엄마 아빠 땀에 내가 못살아. 이 오밤중에 자다말고 어떻게 가요?

그냥 두었다가 숨이 멎을까봐 그러지. 얼음에 재워져 있다며? 바다가재는 얼음처럼 찬 해저에서 사는 거라 괜찮아요.

지금은 아주 팔팔하거든. 지칠지도 모르고.

지쳐도 할 수 없고 죽어도 할 수 없지. 엄마는 그 거땀에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럽도록 고단하게 사는 딸이 시부모님 때문도 아니고 친정 부모님 때문도 아니고 애들 때문도 아니고 직장 때문도 아니고 그까짓 가재땀에 이 밤중에 일어나서 운전대를 잡아야 하겠수?

애도.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할 건 뭐있어. 못 오면 말지.

어서 주무세요. 내일 오후에 갈게요

공연히 고단한 딸을 성가시게 했구나 싶어 여인은 남편에게 눈을 흘킨다. 전화를 하라고 성화를 한 것이 남편인 것이다.

왜 아이들 보여주라는 말을 안 해요? 숨 쉴 때 애들부터 보여주고 나중에야 누굴 주든지 살아먹든지 처치하라

고 그러라니까.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럽도록 고단하게 사는 딸을 그까짓 가재 땀에 오밤중에 운전시키고 싶으네요.

어쩔 수 없이 내외는 거대한 상자에 매달려 끄덕거리다. 그러나 바다가재를 담은 나머지의 모든 공간을 얼음으로 채운 상자는 꿈쩍을 안한다.

여인이 보자기를 꺼내다가 한 귀퉁이를 밑에 찰러 넣으라고 영감에게 눈짓을 한다. 그렇게 해서 다른 한 끝을 잡아당기면 웬만한 무게의 것은 움직여지게 마련이다.

천신만고 끝에 상자는 배란대로 옮겨졌다.

그런데 아무리 얼음처럼 찬데서 사는 생물이지만 배란다는 너무 추운 거 아닌가. 끄덕 얼어붙으면 어쩌지? 대체 저 시커먼 녀석에게 적당한 기온은 어느 정도쯤인지 내외는 옥신각신한다. 한겨울에도 얼음에 쟁인걸 보면 배란다가 맞다느니 그래도 실내가 안심이라느니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주방 창틀 앞으로 끌어온다.

내외는 좀처럼 그 앞을 떠나지 못한다. 구슬 같은 눈을 깜짝이며 목을 빼듯 눈알을 앞으로 쑥 내밀어서 굴리고는 자라목 오모리듯 쑥 들어가는 게 여간 신기한 게 아니다.

너른 바다에서 활개 치다 난데없는 아파트로 실려 왔으니 숨이나 제대로 쉴 수 있을까 모르겠네

그래서 배란다가 나올 것도 같은데

아까는 얼어 죽을 꺼라더니?

아이구 모르겠다
늘그막의 내외는 상자 뚜껑을 덮어주는 게 나으가 열어드는 게 나으가로 또 옥신각신이다. 질식을 염려하는 건 남편이고 뚜껑을 열어두었다가 얼음이 녹는 틈에 그 힘센 녀석이 튀어나오면 어쩌냐는 것은 아내의 우려다. 결국 뚜껑을 느슨히 덮기로 한다.

설마 이 녀석이 하룻밤 새 어떻게 되는 건 아니겠지? 한시라도 빨리 손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다시 눈 흘기는 시늉을 한다.

설마요 근데 정말로 보낸 사람이 누군지 생각 안 나우? 여자 이름이라 일부러 생각 안 나는 척 하는 건 아니구?

느닷없이 초인종이 온다. 이어 현관문을 쾅쾅 두드린다. 자정이 다된 시간에 무슨 일인가 열고 보니 택배사원이다.

아까 가져온 택배 있죠? 천사호가 아니라 이천사호 건데 이자가 안 보이는 바람에 물건이 잘못 배달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자기 한끝을 잡아 현관으로 끌어오자 택배청년은 그 무거운 상자를 번쩍 쳐든다.

이거 봐요 총각 새우도 있어.

냉동실에 넣었던 새우를 꺼내다주자 총각이 상자로 받으며 현관문을 탕 닫는다. 늘그막의 내외만 남은 집안이 갑자기 썰렁하다. 내외는 마주보고 얼쩡게 웃는다. ■



서울 출생, 서라벌 예대 문예창작과 졸업하고 1974년 여성동아 장편공모 당선, '현대문학' 추천으로 등단했다. 저서로 <몽유병동>, <산 울음>, <진혼미사>의 창작집과 장편소설집 <타인의 목소리>, <누이여 천국에서 만나자>, <백록담 연가>, <초록빛 아침>, <마음의 물결> 등이 있다. 1990년 제 16회 한국소설문학상, 1998년 제 14회 펜문학상, 2004년 제 2회 월간문학 동리상을 수상했다.

새콤달콤한 ‘감귤’은 건강 비타민!

임금님이나 드시던 진상품 감귤이 이제 가장 대중적인 먹을거리가 됐다. 덕분에 요즘 같은 겨울철에 온 가족이 모여 앉는 자리면 빠지지 않고 감귤이 등장한다. 새콤달콤 맛있는 감귤, 알고 먹으면 맛과 즐거움이 배가 될 것이다.

감귤의 종류

넓은 의미의 감귤류는 오렌지, 만다린, 탄 제린, 클레멘타인, 레몬, 라임까지를 말하며 서양에서는 이들 전체를 Citrus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의 밀감(蜜柑)은 만다린의 일종으로 온주밀감(溫州蜜柑)을 칭하는 것이며, 감귤(柑橘)은 금감이나 탕자를 제외한 모든 것을 총칭한다.

일반적으로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분류하며 그 중에서도 조생온주 품종인 흥진,궁천이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다.

감귤의 효능

귤에는 감기 예방에 좋은 비타민 C를 비롯해 항암 성분이 다량 들어 있어 감귤만 열

심히 먹어도 한겨울 건강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다고 한다.

감귤에 들어 있는 특이 성분과 약리작용을 분석한 결과만 봐도 감귤이 온 국민의 건강 지킴이로 우뚝 서기에 충분하다. 우선 겉 껍질에는 진정·항암작용을 하는 리모넨이, 속껍질에는 뇌졸중과 천식을 예방하는 비타민P(헤스페리딘)을 비롯해 항암제 나란진이 들어 있다.

또 씨앗에는 폐암과 위암 등에 효험이 있는 리모넨, 베타클립토키산틴, 노밀린 등이 있으며 과육에는 항암·염증 예방·교감신경 흥분 작용을 하는 카로틴과 시네후린이 들어있다.

▶ 감귤의 10대 기능

• **암 예방, 면역증강, 항균작용** : 감귤에 함유된 ‘베타-클립토키산틴’은 암을 예

방하고 면역을 증강시키며, 플라보노이드와 구마린은 악성종양의 성장을 억제, 항균 작용에 탁월함.

- **식욕증진** : 구연산은 식욕증진에 효과적이며, 후식으로 합리적인 영양식품
- **임산부 및 어린이 건강에 도움** : 칼슘과 비타민류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임산부 및 발육기 어린이에게 좋다.
- **피로회복과 피부미용에 효과** : 알칼리성 과실로 혈액을 중화시켜 피로 회복 작용을 하고, 혈액을 좋게 하여 피부를 매끄럽게 한다.
- **고혈압 및 감기 예방** : 감귤에만 있는 비타민 P는 모세혈관을 보호해 고혈압을 예방하고, 다량의 비타민 C의 작용으로 감기 예방에 좋다.
- **체질개선 및 멸미약 효과** : 곡류중심의 식사로 인해 산성화된 체질 개선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감귤 향기와 산뜻한 맛은 멸미를 덜어준다.

좋은 감귤 고르기

- **반짝반짝 윤이 나고 지나치게 번들거리는 것은 피할 것**
껍질에 지나치게 윤이 나는 것은 덜 익은 감귤을 따서 인공적으로 코팅한 것으로, 약간의 흠집도 있고 덜 반짝거리면서 가무잡잡한 점들이 있는 것이 좋다.

- **너무 큰 것은 고르지 말 것**
무조건 큰 것보다는 적당한 크기의 것이 더 맛있다. 만져보았을 때 탱탱하고 싱싱한 것을 고르도록 한다.
- **꼭지가 파랗게 붙어있고, 싱싱한 것으로 고르도록 할 것**
- **껍질이 얇고 담홍색이며 배꼽에 돌기가 있는 것을 고를 것**
껍질이 얇을수록 벗기기에 좋고, 귤 배꼽 부분이 진한 담홍색 빛을 내는 것이 당도가 높아 맛있다.

감귤 껍질 활용하기

- 말린 귤껍질을 물과 함께 끓인 다음 그 물에 삶은 빨래들을 넣어 10분 쯤 담갔다가 헹구면 표백효과가 있다.
- 면 주머니에 귤껍질을 넣어 묶어서 따뜻한 물에 있는 욕조에 넣고 목욕하면 몸이 더 따뜻해진다.
- 귤껍질을 소금으로 문질러 깨끗하게 씻은 다음 말려서 차로 끓여 먹으면 향긋한 진피차가 된다.
- 생선요리를 한 냄비나 팬에 귤껍질을 넣어 끓이면 냄새도 제거되고 깨끗해진다.
- 귤껍질을 끓인 물로 마룻바닥이나 가구를 닦으면 광택이 난다.

(자료제공 : 농수산물유통공사)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웰빙 간식

겨울밤이 길게 느껴져서 그런지 야식의 유혹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다.
맛 좋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웰빙 간식이 있다면 먹어도 부담이 덜할 것 같다.
야식으로도, 손님 접대에도 손색이 없는 색다른 웰빙 간식을 소개한다.

고구마김치떡

재료>고구마 4개,
버터 2큰술,
설탕 1작은
술, 물엿 2
큰술, 김치
잼(다진 김치
1/2컵, 설탕 1/2컵,
버터 2큰술, 물 1/2컵), 김치조림(버터 1큰술, 설탕 2큰
술, 다진 김치 1컵)



<만드는 법>

- ① 김치를 잘게 다져서 국물을 꼭 짰다.
- ② 냄비에 다진 김치 1/2과 설탕, 버터, 물을 넣고 끓여 잼처럼 만든다.
- ③ 냄비에 버터를 두르고 남은 김치와 설탕

탕을 넣고 볶는다.

- ④ 고구마는 깨끗이 씻어 찜통에 넣고 푹 삶는다.
- ⑤ 삶은 고구마는 껍질을 벗겨 주걱으로 으깨 후 버터, 설탕, 물엿으로 간을 한다.
- ⑥ 간은 한 고구마를 동그랗게 빚어 속에 경단 빚듯이 김치조림을 넣고 잘 둥글린다.
- ⑦ 둥글린 고구마 위를 손으로 위를 평평하게 한 후 김치잼을 올린다.

홍시양갱

재료>홍시 2개, 단감
1/3개, 한천
15g, 물
1컵, 설탕
1/3컵,



소금 1/4 작은술

<만드는 법>

- ① 홍시는 껍질을 제거하고 속살만 체에 내린다.
- ② 물에 한천가루를 넣고 끓인다.
- ③ 한천가루가 녹았을 때 설탕, 소금을 넣고 끓인다.
- ④ ③에 체에 내린 홍시를 넣고 5분 정도 끓인다.
- ⑤ 단감은 다지거나 채 썰어 틀에 담는다.
- ⑥ 틀에 끓인 홍시액을 부은 후 냉동실에 넣어 굳힌다.

현미순두부탕

재료>현미 1컵,
물·우유 2컵
씩, 순두부
1/2팩, 꿀 1
큰술, 소
금·견과류
(호두·잣 등) 약
간씩



<만드는 법>

- ① 현미는 씻어 1시간 정도 물에 불린다.
- ② 냄비에 물을 붓고 현미를 넣어 끓인다

가 현미가 퍼지면 약불로 줄인다.

- ③ 우유를 붓고 고루 저으면서 끓인 다음 소금으로 간한다.
- ④ ③에 순두부를 넣고 2분 정도 끓이다가 꿀과 견과류를 넣고 고루 섞는다.

꿀 요구르트

재료>꿀4개,
플레인요구르트
1/2컵,
키위 1개,
설탕 1 작은
술, 레몬즙 1작
은술



<만드는 법>

- ① 2개의 꿀을 껍질을 벗겨 알알이 떼고, 키위는 한 입 크기로 썬다.
- ② 요구르트에 설탕(꿀), 레몬즙, 꿀, 키위를 넣고 고루 섞는다.
- ③ 2개의 꿀은 껍질을 벗기지 않고 위쪽을 자른 후 속을 파내어 컵으로 만든다.
- ④ 파낸 꿀의 속은 버무려 놓은 요플레 재료와 섞는다.
- ⑤ 컵 모양으로 만든 꿀에 섞은 요플레를 채워 담아 놓는다.

겨울을 녹여주는 여행지를 찾아서

겨울은 추위야 제격이라고 하지만 겨울바람 앞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더욱 그립다. 추위와 피곤으로 움츠러든 몸과 마음을 따끈따끈하게 녹여줄 온천욕과 숲가마 찜질 여행을 떠나보자.

- **따끈한 온천욕과 다양한 여행 테마 체험**
- **경북 문경시**



중부내륙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경북 문경시 문경읍에는 두 개의 온천이 있어 문경 겨울여행을

따끈하게 꾸며준다.

하나는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고급기능성 문경온천' 이고, 다른 하나는 문경관광호텔의 자매기업인 '문경종합온천'이다. 두 군데 모두 동일한 온천원수를 사용하고 있어 기능상 차이점은 없다.

문경온천에 가면 칼슘, 중탄산천과 알칼리성 등 두 가지 수질의 온천욕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곳의 온천 관계자들은 '문경온천이 성분 면에서 일본의 벳부온천을 능가한다'고 강조한다.

온천욕을 전후로 문경새재 트레킹, 박물관과 전시관 관람, 명찰과 문화유적 답사, 겨울산 등반, 철로자전거 타기, 체험학습여행 등 다양한 테마로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점, 별미거리가 풍성하다는 점 등이 문경 겨울 여행의 장점이다.

- **한방(韓方)으로 후끈후끈, 숲가마로 뜨끈뜨끈**
- **경남 산청군**



지리산의 품에 안긴 경남 산청, 골 깊은 산비탈 바위틈에서 이슬 머금은 야생약초가 웅골차게 자

란다. 눈길 닿는 곳마다 약초재배지가 펼쳐지고 한방 약초를 이용한 요리와 반찬들이 상에 오르니 산청은 진정 약초의 고장이다.

동의보감을 집필한 의성(醫聖) 허준과 그의 스승인 류의태 선생의 자취가 곳곳에 전해오며 한의학의 진수를 접할 수 있는 한의학박물관이 자리하니 동의보감의 고장이기도하다.

더불어 지리산 참숯굴에서 원적외선과 음이온을 온몸으로 받는 숲가마 찜질을 하면 후끈후끈 열기에 겨울 추위를 한방에 물리칠 수 있다.

고려 공민왕 때 문익점 선생이 처음으로 목화를 재배했던 목면시배유지와 성철스님의 생가, 돌담이 아름다운 남사 예담촌, 밤머리재 너머의 대원사와 내원사 또한 산청 여행길에 들려볼 만한 곳이다.

이달의 읽을 만한 책

채식주의자

한강 著/ 장비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세 편의 연작 소설로 이루어져 있다. 작품의 완성도와 독립성으로 인해 한편씩 따로 읽어도 무방하다. 『채식주의자』를 읽는 일은 낯선 길을 걸어갈 때 갖게 되는 조심성과 집중력을 요구한다.

어린 시절의 폭력이 한 인간의 내면에 어떻게 각인되는지, 그 상처가 주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집요하게 따라가는 『채식주의자』는 인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욕망의 미세한 지형도이기도 하다. 이 소설 속의 깊은 상처로 인해 발생하는 이상 심리들은 괴기스러운 정도의 미학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누구도 쉽게 그 상처를 외면할 수도 치유할 수도 없으나, 한 여자가 육식을 거부하며 맞서고 있는 이 동물적인 폭력의 세계를 독자들은 얼얼한 마음으로 관찰하게 된다. <추천자 : 신경숙(작가)>

이야기가 있는 종이 박물관

김경 글, 김종만 사진/ 김영사



아름다운 것들은 조용하고 자연스럽다. 그리고 그 옆에 있으면 어디로부턴가 피어오른 그윽한 기가 마음을 가득 채운다. 한 저녁 방바닥에 엎드려 이 책을 벗하니 때 묻은 속세의 걱정들이 소리 없이 물러난다. 새색시의 꽃가마에 실려 간 부끄러운 종이 요강, 손자의 두뇌훈련을 위해 특별히 고안한 자상한

할아버지의 지혜지(知慧紙) 등등 27개의 소박하고 진솔한 이 물건들이 모두 부드럽지만 강인한 종이에 스며든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미감을 드러내고 있다. 필자 김경은 그녀의 80대에 비로소 구수한 뒷이야기와 함께 이들을 세상에 내놓았다. 사진작가 김종만도 김경의 정성을 고스란히 담았다. 제주도에 집을 마련해 오래된 이 물건들의 안식처를 찾았다고 안도하는 김경의 아름다운 속내도 종이상자를 닮았다.

<추천자 : 김춘미(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예쁜 우리말 사전

박남일 글, 구성민 그림/ 파란자전거



어린이나 어른이나 경쟁적으로 외국어를 익히는 일에 골몰해 있는 때에 『예쁜 우리말 사전』은 조금 뜻밖일 수도 있겠다. 제목에서 '예쁜 우리말 사전'이라고 했는데 '예쁜' 우리말에 대해서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까지 흔히 써 오던 것도 아니며

전혀 귀에 익지 않은 우리말인 것도 아니다. 지난 세월, 웃어른들의 일상어로 빈번히 입에 올려지던 어휘이며 낱말들이라서 더욱이나 정겹다. 어린이를 위해 씌어진 글이라고 했으나 어른이 함께 읽어도 손색이 없는 것은 물론, 책을 읽는 동안 우리말의 아름다움에 새삼스레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사전이라고 했으니 뜻풀이를 돕는 아기자기한 그림이 곁들여진 한 권의 아름다운 이야기책으로 보였다. 가까이 두고 자주 들춰 읽는 동안 순수한 우리말을 나의 말로 익혀가게 될 것이다.

<추천자 : 엄혜숙/이상교(아동도서연구가/아동문학가)>

서울특별시지부

장학금 전달식

광진구지회(회장 이옥순)는 지난해 12월 20일 광진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광진구청장, 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광진지회 회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고등학생 13명에게(1인당 443,100원씩) 장학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부산광역시지부

실버 소비자 교육

시지부(회장 김기묘)는 실버 소비자 보호 및 상담을 위해 실시한 실

버 서포터즈 양성교육을 이수한 실버 서포터즈들이 지난 12월 6일, 7일, 14일 3회에 걸쳐 본회 강의실, 대한노인회, 금정선원에서 노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노인 소비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실버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수입에서 소비까지 모든 행동에 책임져야함을 강조하면서 실버 소비자를 마케팅 대상으로 삼고 있는 악덕 상술에 대한 대응 요령 등 실버 소비자 피해 예방법을 소개한 후 기체조 등을 통한 건강관리 시간을 가졌다.



한 부모 가정 자녀돕기 및 송년회

지난 12월 12일 여성센터 대강당에서 한 부모 가정 자녀들의 학교생

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급식비 전달식을 갖고, 이후 1년을 마무리하는 송년회의 밤을 개최해 회원들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구광역시지부

에너지절약 캠페인

시지부(회장 손기순)는 고유가 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절약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지난



12월 7일 MBC 네거리에서 에너지관리공단 대구지역본부 직원들과 회원 6명이 공동으로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전개해 범시민적 에너지 절약 운동 실천을 유도했다.

청소년 경제 교육

12월 11일과 18일 대구 서부고등학교 3학년과 대구 성당중학교 전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경제 교육을 실시했다.

경제에 대한 관심 고조와 함께 청소년들의 과소비 및 충동구매가 문제가 되면서 돈의 가치와 쓰임새 등 올바른 경제관념 형성으로 바람직한 소비생활 습관을 유도하고자 했다.

태안반도 자원봉사 및 환경정화 활동

충남 태안의 청정해역을 휘감은 사상 최악의 원유유출 사고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정해역 복원을 위한 자원 봉사 참여가 전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동참하고자 지난 12월 17일 회원 3명이 태안군 파도리 해변가를 방문해 기름띠 제거 등 방제 작업에

실시했다.

또한, 12월 12일에는 등산반 38명이 남해 벽방산을 찾아가 산행과 함께 쓰레기 줍기 등 주변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인천광역시지부

사랑의 김장김치 나눠주기

시지부(회장 한혜자)는 지난 12월 4일~5일 이틀동안 회원 50명이 시지부 사무실 마당에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차상위계층 불우이웃을 위한 김장 김치를 담가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봉사활동 및 '봉사자를 위한 송년의 밤' 행사

서구지회(회장 이민자)는 지난 12월 10일 회원 7명이 석남동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복지관을 이용하

시는 어르신 250여분에게 중식을 제공했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35분에게는 배달용 도시락을 준비해 전달했다.

한편, 12월 20일에는 회원 15명이 석남동 노인 복지관에서 열린 '자원봉사자를 위한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고순석 회원이 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식사와 함께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졌다. 이후 송년모임을 갖고 일년 간의 노고를 서로 치하하며 친목을 도모했다.

재난예방교육 참석 및 봉사활동

계양구지회(회장 고영숙)는 12월 4일 작전역에서 회원 4명이 소중한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재난예방교육에 참여했고, 4일~5일에는 회원 4명이 시지부에서 주최한 김장김치 담기그 행사에 참여해 김장을 담가주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봉사활동

강화지회(회장 강혜옥)는 12월 3일 회원 10명이 강화문화회관에서 실시한 '자원봉사교육'에 참석해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교

육을 받았다.
12월 4일에는 여협주관으로 열린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에 회원 2명이 참여해 도우미 봉사활동을 실시했고, 15일에는 회원 3명이 태안군 기름유출 사고현장을 찾아가 기름 제거 작업 등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동구지회(회장 유옥분)는 12월 17일 회원 5명이 화도복지관에서 열린 소년소녀가장 밑반찬 만들기 행사에 참여했고, 27일에는 회원 5명이 사랑의 장터에서 열린 동구 여성단체협의회 주최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에 참여해 내빈접대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남구지회(회장 김경옥) 회원 4명과 남동구지회(회장 김연숙) 회원 5명은 12월 4일~5일 시지부 마당에서 마련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눠주기 행사에 참여했다.

광주광역시지부

국산 김치 소비촉진 캠페인
시지부(회장 박영희) 회원 33명은 지난 12월 11일 광주광역시내 상가

일대에서 김장철을 맞아 싸값에 국산으로 둔갑해 팔리고 있는 중국산 배추의 무분별한 판매를 방지하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 보급 및 국산 김치 장려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주부들의 역할' 교육

12월 21일 남구 봉선2동 사무소 프로그램실에서 남구 주민 107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김봉학 광주 전남 비전2 리더십센터 소장은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주부들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함을 강조하며 주부로서의 모습에 당당할 수 있는 여성이 되기를 당부했다.

신용카드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교육

12월 26일 KT 3층 세미나실에서 회원 및 일반 주부 150여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실시했다.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이 신용불량자를 양산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상식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 부장은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이 그 피해 예방은 물론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했다.



대전광역시지부

청소년 소비자 교육

시지부(회장 송병희)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17일까지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17개교 학생 3,000여명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소비문화 형성을 위한 청소년 소비자 교육을 실시했다.

한 해 동안 본 시지부에 접수된 청소년 관련 피해 상담사례를 활용해 소비자의 8대 권리와 5대 책임, 방문판매 및 통신판매에 대한 대처법 등 소비자 피해 예방법 및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소비자 역할을 소개했다.



울산광역시지부

'웃음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 주부교실 화합의 장' 행사

시지부(회장 박보봉)는 지난해 12월 12일 현대아트홀에서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웃음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 주부교실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 초빙된 강사로부터 삶의 웃음과 대화가 가득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고, 이후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회원 간 사랑과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지부

물가안정 캠페인

도지부(회장 박명자)는 지난 12월

12일 회원 50여명이 갤러리아 백화점 사거리에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했다.

고유가와 농작물 작황부진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가운데 물가안정을 위한 시민들의 건전한 소비생활 실천을 유도했다.



에너지절약 캠페인

수원시지회(회장 이현숙)는 12월 3일 수원역 광장에서 회원 40명이 수원시청 직원들과 함께 고유가 극복을 위한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내복 입기 생활화 실천을 유도하는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전개했다.



노인 소비자 교육

의왕시지회(회장 신동화)는 12월 10일 오전동 모락산 현대아파트 노인정에서 노인 40분을 모시고 노인 소비자 교육을 실시했다.

노인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악덕상술의 사례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법 및 안전 구매 요령을 소개했다.

군 장병을 위한 만두 만들기

연천군지회(회장 장애정)는 지난 12월 27일~28일 이틀 동안 전방 군인들의 노고에 감사하기 위해 만두 1만개를 만들어 전달했다.

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안 학암포 해수욕장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전개했고, 18일 창죽, 철암 일대에서 '태백 생명의 숲' 과 태백국유림관리소에서 마련한 '사랑의 딸감 나누기' 행사에 회원 4명이 참여해 한해 동안 모은 폐잔목 20여t을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해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했다.



강원도지부

봉사활동

태백시지회(회장 오영희)는 지난 12월 7일 회원 5명이 관내 거주하고 계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위해 이동목욕 봉사활동을 실시했고, 1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자원봉사자 대회에 회원 15명이 참석해 안내 도우미 활동을 전개했다.

17일에는 회원 6명이 기름유출사

충청북도지부

제8회 충북 가족 동요제

도지부(회장 최광옥)는 12월 22일 충북 여성발전 센터에서 "제8회 충



북 가족 동요제"를 개최했다.

참가한 25가족이 동요를 부르며 정서 함양과 함께 화음을 조율함으로써 가족 간 화목과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봉사활동

청주시지회(회장 권지순)은 지난 12월 7일 회원 8명이 독거노인 3가정을 방문해 정성껏 만든 마른 반찬을 전달했다.

제천시지회(회장 장태봉)은 12월 3일 회원 9명이 하소리 복지관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들과 장애우들을 위한 중식 제공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28일에도 회원 10명이 관내 위치한 노인 복지관을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계시는 어르신께 식사 대접과 함께 말벗이 되어드렸다.

또한 12월 17일 회원 5명이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태안 기름 유출 수거 작업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괴산군지회(회장 김문예)는 12월 5일 회원 6명이 에덴 청천 재활원을 방문해 반찬 만들기 및 청소, 빨래 봉사활동을 전개했고, 24일에는 여성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이주여성

을 돕기 콘서트」 행사에 참여해 성금 기탁과 함께 행사 진행 도우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단양군지회(회장 김길성)는 12월 7일 회원 10명이 관내 위치한 노인 복지관을 찾아가 식당 도우미 활동을 실시했다.

진천군지회(회장 지미순)는 12월 29일 회원 8명이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일환으로 마련한 '불우이웃돕기 톨게이트 공동모금' 행사에 동참했다.

증평군지회(회장 김정자)는 12월 5일 회원 12명이 장애우가 생활하고 있는 '머리뚝 은혜원'을 찾아가 미용 및 청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영동군지회(회장 임정선)는 12월 22일 회원 10명이 여성회관에서 열린 '곶감 축제'에 참여해 족욕행사 체험학습 도우미로 활동했고, 24일에는 회원 10명이 영동역 앞에서 군민 이탈을 막기 위한 '5만 인구 지키기' 행사에 참여해 군민들에게 커피 제공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옥천군지회(회장 유재숙)는 12월 6일 회원 50명이 여성회관에 모여 이주여성과 함께 김장 김치를 담그

며 우리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했고, 13일에는 회원 5명이 태안 학암포를 방문해 기름띠 제거 작업에 참여했다.

충청남도지부

우리 농산물 원산지 표시 교육

도지부(회장 조춘자)에서는 지난해 12월 4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공주 연기 출장소에서 회원 50명을 대상으로 우리 농산물 원산지 표시 교육을 실시했다.

품질관리원 이주일 주무관은 원산지 표시 정착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감시 기능과 함께 원산지 자율관리제를 판매장 스스로 지켜 농업인에게는 희망을, 소비자에게는 믿음을 주어 소·농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가장 시급함을 강조했다.



독거노인 돕기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지난 12월 6일에는 회원 20명이 주부교실 사무실 마당에 모여 관내 거주하고 계시는 독거노인 30분을 위한 김장 김치를 담가 전달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바자회 및 봉사활동

지난 12월 5일 연말연시를 맞아 해 서울시청 앞에서 더불어 사는 사회조성을 위한 사랑의 바자회에 회원 50명이 참여해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며 아나바다 실천 운동에 앞장서기로 했다.



26일 회원 25명은 공주시 의당면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인 금강원을 방문해 쌀과 과일, 회원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하며 쓸쓸한 말년을 위로해 드렸다.

전라북도지부

주부대학 동문회

도지부(회장 최원자)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 주부대학 동문 및 회원 120명이 전주관광호텔 2층 풍납실에 모여 주부대학 동문회 모임을 개최해 강연과 함께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가지며 회원 간 친목 및 결속을 다지며 주부교실 발전을 기원했다.

봉사활동

군산시지회(회장 박희순)는 12월 4일 회원 20명이 군산시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눠주기 행사에 참여해 어려운 형편 때문에 김장 김치를 마련하지 못한 이웃을 위해 김장김치를 담가 전달했다.

완주군지회(회장 최영숙)는 12월

3일~4일 회원 10명이 회장 자택에 모여 김장 김치 300포기를 담가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고, 10일~12일에는 완주군 여성단체협의회가 마련한 불우이웃돕기 김장김치 담가 나눠주기 행사에 참여했다.

고창군지회(회장 전옥선)는 12월 5일~6일 회원 20명이 고창읍 여성회관에 모여 불우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담가 나눠주기 행사에 참여했고, 9일에는 회원 7명이 무장면에 위치한 노인병원을 방문해 목욕 및 청소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쓸쓸한 말년을 위로했다. 또한 14일에는 회원 10명이 고창읍 국악당에서 열린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안내 및 무료 차 제공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무주군지회(회장 김순득)는 12월 13일 회원 10명이 무주군복지회관에서 열린 바자회에 참여해 시민들에게 무료 차 제공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부안군지회(회장 김용순)는 12월 4일 회원 20명이 관내 거주하고 계시는 독거노인 50분을 봉덕리 소재 한상규이 음식점에 초대해 식사 대접을 하며 쓸쓸한 말년을 위로해 드

리며,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쌀 한포씩을 나눠 드렸다.



임실군지회(회장 김미숙)는 12월 4일 회원 전원이 청소년수련관에 관내 거주하고 있는 불우이웃 50여 명을 초대해 식사 제공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진안군지회(회장 한은숙)는 12월 21일 회원 4명이 군내 거주하는 불우이웃 5세대에게 쌀20kg씩을 각각 전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장수군지회(회장 양순옥)는 12월 2일~3일 회원 10명이 회장 자택에 모여 김장김치를 담가 생활이 어려운 이웃 10세대에게 나누어 전달했



고, 4일에는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장수읍 예식장에서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6세대의 부부를 위한 결혼식 경비 일체를 지원해 결혼식을 올려 주었다.

전라남도지부

이주 외국인 여성 김장 담그기 체험

광양시지회(회장 신행숙)는 12월 10일 광양시 기술센터에서 국제결혼으로 인한 국내 이주 외국인 여성 50명과 회원 50명 총 100명이 한 자리에 모여 김장김치 담그기 체험 행사를 개최해 한국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불우이웃돕기 행사 및 봉사활동

순천시지회(회장 신애란)는 12월 4일 회원 40명이 순천 궁전웨딩홀에서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 가정 등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특산물 판매 및 바자회 등 “김장김치 담그기” 후원 행사를 개최했다.

또한 12월 매주 금요일인 7일, 14일, 21일, 28일 회원 30명이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독거노인과 장애우 50가정에 마른 반찬을 전달하며 무료 급식을 제공했다.

여수시지회(회장 이안자)는 지난 12월 17일 회원 50명이 유조선 피해지역인 태안군 구름포 해수욕장을 찾아가 기름 찌꺼기 제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구례군지회(회장 마순남)는 12월 회원 30명이 일주일에 2번 총 8번에 걸쳐 군내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및 장애우 가정을 방문해 집안 청소 및 빨래, 마른 반찬 만들어 주기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장흥군지회(회장 채은아)는 지난 12월 17일~21일까지 회원 50명이 여성단체 회원들과 함께 장흥군 축협과 장흥군민회관에서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개최해 군내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 소년소녀 가장 100가정에서 각각 전달했다.

강진군지회(회장 김종심)는 12월 11일~20일 회원 50명이 떡국 떡 판매를 실시해 얻은 수익금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20가정에 쌀과 생필품을 전달하며 위로 격려했다.

진도군지회(회장 김흥자)는 12월 14일~16일 회원 50명이 진도구민회관에 모여 1,500포기 김장김치를 만들어 불우이웃 150세대에게 나누어 전달했고, 20일에는 회원 40명이 노인성 질환자와 독거노인 거주시설인 ‘성 요셉 요양원’을 방문해 목욕 및 빨래 봉사를 비롯해 식사도우미 활동을 전개했다.

24일에는 독거노인 가정과 경로당에 케이크를 전달하며 쓸쓸한 말년을 위로하며 말벗이 되어 드렸다.



미화요원 방한복 전달식

고흥군지회(회장 박민자)는 지난 12월 26일 고흥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깨끗한 고흥을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 미화요원 50분에게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고자 방한복

을 준비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다식 만들기 체험

담양군지회(회장 김향자)에서는 12월 20일 회원 40명은 전통음식 전수자인 이수자씨가 운영하는 이순자 약식 체험관을 방문해 다식 및 약실을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잊혀져가는 한국 전통 음식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여성이 지켜야 할 마음자세” 교육

영암군지회(회장 노영미)는 12월 26일 영암군여성회관에서 여성단체와 함께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이병택 서울국학원장은 회원 및 일반 주부 150여명을 대상으로 ‘여성이 지켜야 할 마음자세’란 주제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의 자기계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경상북도지부

불우이웃돕기 및 봉사활동

구미시지회(회장 한로미)는 12월 6일 회원 8명이 구미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중식 배식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김천시지회(회장 김영희)는 12월 5일 회원 4명이 노인전문 의료원을 찾아가 노인 100여분을 위한 김장김치 담그기 봉사활동을 실시했고, 20일에는 김천 시청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

포항시지회(회장 김귀련)은 매주 월요일마다 회원 7명이 학산주공아파트 단지 내 독거노인과 장애우 가정 22세대를 대상으로 점심식사 배달 및 그릇 수거·세척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2월 6일 회원 9명이 열린 가람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에 쌀의 전달했고, 10일에는 회원 20명이 포항시청 광장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동참해 성금을 전하며 사랑의 열매 달아주기, 거리 행진 모금활동 도우미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12월 15일에는 회원 10명이 독거노인 및 장애인 30여명이 거주하는 ‘들꽃마을’을 찾아가 떡국과 과일을 대접하고 생필품을 구입해 전달했고, 19일에는 회원 15명이 대잠동 햇빛마을 요셉의 집을 방문해 쓸쓸하게 연말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건강운동 요법, 국악공연 시간과 함께 다과를 대접하며 위로했다.

경주시지회(회장 박추자)는 12월 3일 회원 15명이 경주시 주관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에 연탄을 기부하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실시했고, 11일에는 회원 2명이 안강읍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을 위한 목욕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상주시지회(회장 육순단)는 12월 21일 회원 4명이 관내 거주하는 독거노인, 편모가정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며 청소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영주시지회(회장 정순옥)는 12월 19일 회원 10명이 독거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하망동 ‘만남의 집’을 방문해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했고, 28일에는 영주시청을 찾아가 연

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

문경시지회(회장 이영희)는 12월 21일 회원 5명이 문경시청을 방문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고, 24일에는 장애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독거노인에게 냉장고를 선물로 전달했다. 같은 날 문경시가 주최한 ‘차사발 축제’에 회원들이 참여해 오미자 홍보 도우미 활동으로 문경시 홍보상을 수상하는 기쁨도 누렸다.

한편, 지난 12월 26일에는 회원 5명이 황제웨딩홀에서 문경시가 주최한 다문화가족 행사에 진행 도우미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3가족에게 화장품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성주군지회(회장 김미경)는 지난 12월 20일 회원 5명이 군내 거주하고 계시는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라면, 밀감, 생필품 등을 전달하며 쓸쓸한 노년을 위로했다.

12월 27일에는 회원 5명이 태안군 기름유출 사고 현장을 방문해 기름제거 작업에 동참했고, 28일에는 성주군청을 방문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

고령군지회(회장 정숙자)는 12월 4일 회원 5명이 고령군청을 방문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고, 6일에는 성 요셉 재활원을 찾아가 월동준비를 위한 김장김치를 담가주고 왔다.

12월 13일에는 회원 6명이 쌍림면 소재 월막 요양원을 방문해 다과를 준비해 대접하고 목욕 봉사활동을 전개했고, 18일에는 회원 5명이 태안군 기름유출사고 현장을 방문해 기름 제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군위군지회(회장 김은주)도 지난 12월 26일 군위군청을 방문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

영양군지회(회장 박정자)는 12월 8일 회원 6명이 삼삼 노인 회관을 방문해 다과 대접을 하면서 말벗이 되어 드렸고, 목욕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봉화군지회(회장 이유정)는 매주 화요일마다 회원 10명이 법전 요양원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목욕봉사활동을 실시했고, 12월 7일에는 봉화군청을 방문해 ‘희망 2008년 사랑의 열매 달아주기’ 행사에 참여해 성금을 기탁했다.

지난 12월 20일에는 회원 5명이 군내 거주하고 있는 부자(父子) 가정 3세대를 방문해 따뜻한 겨울나

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각 가정에 연탄 300장씩을 전달했다.

청도군지회(회장 김영자)는 12월 7일 회원 7명이 노인 치매 요양원 에덴원을 방문해 떡을 전달하며 목욕 봉사활동을 실시했고, 24일에는 회원 15명이 문화회관에서 열린 청도군 여성대회 행사에 참여해 무료 음료 제공 및 행사 진행 도우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울진군지회(회장 김희자)는 12월 21일 회원 12명이 군청 동문 앞거리에서 열린 거리음악회 사라의 열매 달아주기 행사에 참여해 행사 진행 도우미 활동을 실시했고, 24일에도 회원 8명이 범국민 성금모금행사에 참여해 성금 기탁과 함께 행사 진행 도우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12월 27일에는 회원 12명이 문화회관에서 여성단체 주관으로 가진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행사에

진행 도우미 활동을 실시했다.

장학금 전달식

울릉군지회(회장 김귀선)는 12월 4일 회원 8명이 군내 거주하는 소년 소녀가장 및 독거노인을 위해 김장김치를 담가 나눠 주었고, 24일에는 독거노인 10분에게 쌀과 함께 따뜻한 이웃의 정을 전달했다.

한편, 12월 24일에는 저동초등학교 1명, 울릉초등학교 1명에게 각각 장학금 10만원씩을 전달하여 배움

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했다.

경상남도지부

제6회 부모님이 자녀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 시상식 및 발표회

도지부(회장 이인숙)에서는 평소 자녀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표현할 수 있는 '제6회 부모님이 자녀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 공모전을 개최했다.

지난 12월 4일 경남도지부 사무실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5명이 한 자리에 모여 우수작품 10편을 선정했고, 11일에는 로얄 호텔 회의실에 회원 및 관계자 3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정된 작품에 대한 시상식



및 발표회를 가졌다.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및 봉사활동

밀양시지회(회장 김영숙)는 지난 12월 7일 회원 40명이 은산 마을 덕



인 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해 김장김치 800포기를 담갔고, 말벗이 되어드리며 중식제공 도우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도지부(회장 김영희)는 12월 6일 회원 30명이 제주도 동문시장에서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지역 재래시장이용

이 서민생활 안정과 함께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음을 홍보하는 리플렛을 배포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중앙회 소식

2008년도 시무식



본회는 지난 1월 3일(목) 오후 2시 3층 본회 강당에서 각 조직의 임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시무식'을 가졌다.

시무식에서 이윤자 본회 회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회원들에게 올해에도 본회가 전개하는 사업 및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고, 참석자들은 지역 사회 발전에 앞장서는 지도자로서, 봉사자로서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합창단 창단 20주년 기념식 및 총회



본회 합창단(단장 주순임)이 1월 15일(화) 본회 3층 강당에서 창단 20주년 기념식 및 총회를

가졌다.

이날 모인 합창단원들은 지난해 개최했던 제7회 정기연주회 '가족사랑·이웃사랑 디너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친 것을 자축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 총회에서는 2007년도 사업결산 및 2008년도 사업계획, 임원선임 등의 안건을 승인했고, 지난 한 해 애써주신 임원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했다.

실무자 및 모니터 교육



지난해 12월 20일~21일 아이코리아(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본회가 운영하고 있는 16개 시·도지부의 40개 고발센터 실무자 51명을 대상으로 실무지도력 향상을 위한 '실무자 및 모니터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한국소비자원의 김성천 정책개발팀장, 황정선 연구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한 설명 및 효과적인 소비자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본회 소비자보호국 담당자들은

소비자 운동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태안반도 기름제거 봉사활동



본회 주부대학 동문회 회원 80여명이 지난해 12월 28일 기름유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안군 학암포 해수욕장을 찾아가 기름띠 제거 자원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주부교실게시판

■ 등산반 총회

본회 주부대학 졸업생으로 구성된 등산반이 다음과 같이 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07년도 사업 결산보고 및 2008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비롯해 임원개선에 대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 일 시 : 2008년 2월 12일(화) 11:00
- 장 소 : 본회 3층 강당

■ 소비생활에서 입은 피해 상담 및 구제

소비자들의 권익향상과 피해구제를 위해 전국 48개 지역에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해 소비자 민원상담 피해구제를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을 전화, 인터넷, 방문 등으로 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 화 : (02)2273-2485 · 6300,
(02)2266-5870
- FAX : (02)2279-9341
- E-mail : nhc01@chol.com
- 홈페이지 : www.nhc.or.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 19-3

■ 주부대학 · 주부대학원 개강

본회가 운영하는 주부평생교육 프로그램인 주부대학(70)과 주부대학원(10기)이 한 달여간의 겨울 방학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개강합니다.

- 제70기 주부대학 개강일 :
- 2008년 1월 28일(월) 10:30
- 제10기 주부대학원 개강일 :
- 2008년 2월 14일(목) 10:30

■ 광진여성인력개발센터 수강생 모집

본회가 여성적합직종개발 및 훈련으로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된 직업적성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광진구 소재)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매달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 www.womanpro.org
- 문 의 : (02)3409-1948~9